

에콰도르의 민도(Mindo)로 길을 나서다

손 성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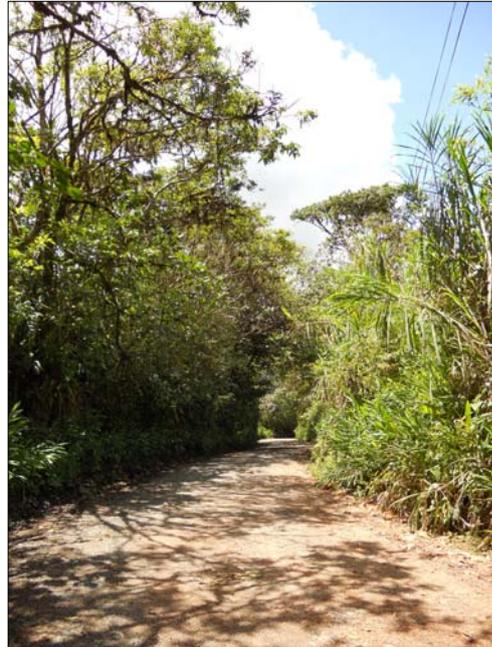
1. 첫걸음, 에콰도르

길을 나서면서 언젠는 여정의 목적을 뚜렷이 정하고 그 길을 정신없이 달려야 하지만, 언젠는 가는 걸음에 그냥 두 다리를 맡겨 볼 때가 있다. 그 때가 지금 이 길을 나설 때였던 거 같다. 정신없이 달려 뒤돌아 볼 겨를 없이 허우적대다 먼 길을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길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살아왔던 그곳과는 물리적 거리가 40시간의 비행시간을 감당할 정도의 거리라 생각해 보지는 못했다.

1년 전, 열심히 살아왔던 삶에 점을 찍고 가족들과 애잔한 헤어짐을 뒤로 한 채 이곳,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 땅을 밟았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라는 명실상부한 이름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이 길에 대한 나의 목적은 명확하지 않았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이들을 도울지 확실한 것 하나 없이 그냥 그렇게 몸을 실었었다. 그래서였을까 나가는 걸음이 그리 무겁지 않았으니 말이다. 비웠을 때 더 많이 담을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이 진리처럼 다가온다.

도착했던 11월은 우기라 비가 많이 왔다. 이 나라의 계절은 두 계절로 나뉜다. 여름과 겨울. 엄밀히 따지면 우기와 건기이다. 어쨌건 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고, 고산이라 걸으면 숨이 차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고산증으로 머리까지 아파왔다. 도착하고 이틀 만에 전차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여 전자사전과 카메라를 잃어버린 뒤로는 나를 더 움츠러들게 하였다. 이렇게 움츠러든 마음을 달래줄 한국음식도 맘대로 먹지 못

하고 두 달 정도 이곳의 수도, 키토에 머물면서 현지훈련을 받았다. 각자 홈스테이로 흩어져 어학원을 다니면서 언어, 생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각자의 임지로 배정을 받는다. 간혹 선배단원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운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단원들은 혼자 떨어져 살아남아야 한다. 나는 후자였다. 혼자 살아남아야만 했다.



민도의 길

2. 혼자 걷는 길, 민도

민도는 키토에서 2시간 남짓 떨어진 곳이다. 키토가 해발 2,800m인데 반해, 민도는 1,400m정도. 이곳에 있으면 키토에서 헉헉 대던 숨소리가 한결 부드럽다. 키토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다 민도 안내판을 보고 좌회전하여 15분 정도 내려오면 자연에 둘러싸인 작지만 아름다운 마을이 나타난다. 이곳은 다양한 새들과 식물들이 많아 관광지로 유명하고 연구를 위해 조류학자와 식물학자들의 왕래도 빈번하다.

2,000여명의 주민들 중 70%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식당, 구멍가게 등을 운영하면서 살아간다. 주말이 되면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캐노피(Canopy), 보트타기(Tubing) 등의 레포츠와 7개의 폭포, 나비 박물관, 다양한 새 관찰하기 등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관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더라도 포장되지 않은 길을 따라 걷기만 해도

민도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에 폭 빠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처음 왔을 때는 이곳이 나에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무거운 짐가방을 실고 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너무 많은 비로 도로는 유실되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정전이 되는가 하면, 물은 나오지 않아 받아 놓은 물에 전전공공해야 했다. 이곳에서 생리적 욕구 충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던 시간이기도 하다.



민도의 길

혼자 집을 구하고, 살림살이를 장만하고, 먹을 양식을 구비하고,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음식들을 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레시피를 보며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가끔 외로워서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혼자 사는 것에 길들여져 갔다.

다행히 이곳에 왔을 때에는 내가 일하기로 했던 학교가 방학이라 여유롭게 이곳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KOICA에서는 각 기관을 배정하고 현지 동료(co-worker)를 정해주는데, 나에게 이 분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처음 기관에 가서 이 나라 인사법으로 인사를 하는데 몸집이 얼마나 좋은지 참 푸근했다. 다행히 처음에 구한 집이 이 분의 집과 가까워 산책도 같이 하고 음식도 함께 나눠먹으며 이들의 생활에 적응해 가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은 집밖에서 내 이름을 정신없이 불러댄다. 나가보면 한 손에 ‘파파야’를 들고 먹으라 한다. 집 앞 나무에서 떨어졌단다. 또 어느 날은 생강을 한 조각 들고 와서 ‘이거 너희 나라에서 먹는 음식 아니냐’며 건넨다. 자잘한 삶의 여운을 남게 했다. 그래서



학교 첫 날

난, 함께 걸을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

3. 함께 걷는 길, 페드로 빈센테 말도나도 학교

민도가 산지와 해안¹³⁾을 경계에 두고 있으나 내가 일하는 학교의 학제는 해안의 학제를 따르고 있어 4월에 개학을 했다. 처음 만나는 아이들. 인종도 다양하다. 흰색의 피부 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부터 까만 아이들까지…… 하지만 원주민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1학년부터 10학년까

13) 에콰도르는 지리상 세 지역으로 나뉘며, 여기에 더불어 태평양의 도서 지역이 있다. 해안(La costa), 산지(La sierra), 아마존(La Amazonia), 그리고 도서지역으로 구분되는 갈라파고스 제도이다.

지 200여명의 아이들과 13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따라온 개들까지 너무나 자유로운 분위기이다. 난 개들이 정말 무섭다. 대부분의 개들은 교실 문밖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게 보통인데, 어떤 개들이 수업 시간에 문을 뺨뚱히 열고 들어 올 때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니들도 그리 배우고 싶은 게냐?’

내가 오기 전까지는 이 학교엔 음악 수업이 없었다(에콰도르 대부분의 작은 학교는 아직도 음악 수업이 없다). 교실이 없어 관리실로 사용하던 조그만 공간을 음악실로 내주었다. 그리고 학교에 오면서 KOICA의 지원을 받아 전자 피아노와 다양한 리듬 악기들, 멜로디언, 피리 등의 악기를 구입하였다. 아이들의 악기에 대한 호기심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다. 하루는 한 아이가 오더니 피아노를 TV에서만 보고 실제로는 처음 본다며 신기하게 여긴다. 그러니 얼마나 신기할까? 누르기만 하면 예쁜 소리를 내고 노래도 함께 부를 수 있으니 말이다. 수업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멀리 떨어져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피아노를 두드려 보질 않나, 리듬악기를 주면 악기 소리에 흥이 난 나머지 수업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주머니 속에 넣어 꺼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혹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다. 이럴 때는 정말 ‘너 가져라’ 하고 싶다. 하지만 누구에게만 그런 특혜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까울 뿐이다.

사실, 음악이 삶이라 할 만큼 음악에 심취해 사는 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려 왔다는 것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음악은 문화여서 삶에 깊숙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도레미파솔’을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의문 속에서 벗어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보표 속에서 돌아다니는 음표들의 집합체를 모른다한들 이들의 음악적 수준이 낮다거나 삶을 표현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 말이다.

음표로 음악을 배운 나는, 가르치는 방법 또한 그리 할 수밖에 없었다. 방학 동안 키토에 있는 서점이란 서점은 다 돌아다녔다. 음악책이 없으면 간단하게 부를 수 있는 동요악보라도 구할 수 없나 해서였다. 하지



작고 비좁은 교실

만 그 많은 서점들 중에 어느 곳 하나 악보를 구비해 놓은 곳이 없었다. 뭐 이런 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수업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현지 동료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악보집 달랑 하나,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얻은 몇 개의 악보들, 유튜브(Youtube)에 있는 노래를 들으면서 기보한 악보 몇 장. 이것이 내가 언어도 안 되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음악이라는 매체로 만날 수 있는 전부였다.

수업 초기에 아이들의 음악적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각자에게 노래를 불러보게 했다. 대부분이 조그마한 입을 벌려 어른들이 부르는 가요를 흉내낸다. 가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나이에 말이다. 그리고 보면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주는 음악적·정서적 영향은 지대하다. 음악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순차적 음높이에 대한 교육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 또한 부를 수 있는 경험을 제공



방학 중 활동

받지 못했을 것이고, 정서적인 면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순수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중간 매체가 미흡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난 더더욱 이 나라 동요를 구하기에 안간힘을 썼다.

노래를 가르치기 위하여 음률을 맞추어 50번은 반복해야 아이들과 눈을 맞대고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무작정 불러대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면 어느 덧 내 입에서 스페인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어렵게 연습해 간 날, 가사를 적고 대충 음정을 넣어주면 아이들은 그리도 쉽게 가사를 음률에 맞추어 불러대는 걸 볼 때 모국어의 위력을 새삼 깨닫기도 했다. 그렇게 하나씩 알려 주었던 노래들이 아이들의 입가에서 맴도나 보다. 내가 길을 가고 있으면 멀리서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준다. 그럴 땐 난 뒤를 돌아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씨~익’ 하고 웃어준다.



방학 중 활동

이 아이들과 한 학년을 같이 보냈다. 언어가 어눌한 나에게 아이들이 적응이 되어가면서 내가 단어 하나만 이야기해도 이해하고 따라한다. 때로는 짧은 나의 말을 이해한 아이가 일어나서 긴 문장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음악의 규칙들을 알아가고 있다. 자유롭게 부르던 노래는 피아노 소리에 맞추어 부르기 시작한다. 막무가내로 흔들여 대던 악기들은 제시하는 박자에 맞추어 연주를 하기 시작한다. 피아노 건반의 흰색과 검은 색을 구별하고 ‘도레미파솔’을 찾아 연주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조금씩 음악 안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나도 이 아이들에게 적응이 되어간다. 나는 나의 친구들에게 이 아이들을 ‘무공해’라 칭한다. 질서도, 규칙도, 예의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니 말이다. 수업시간에 음식을 들고 오지 말라고 수백 번을 외쳤건만 여전히 주머니에 넣고 내가 보지 않을 때 꺼내 먹는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다가



민도의 축제, 가두행렬

화장실 갔다 온다며 나갔는데,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피아노를 치면서 열심히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 건반을 옆에서 같이 두드리는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창문으로 날 부르더니 먹으라며 간식을 건네는 선생님, 수업을 도와주러 온 교사가 내가 필기 할 게 있어 칠판에 몇 자 적고 있는데 그 틈을 이용해 교사가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들. 정말 진이 빠지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기도 한

다. 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있어 외로웠을 시간들이 채워졌다.

4. 앞으로 가야 할 길

이곳에 온지 일 년이 지났으니 처음 왔을 때처럼 방학기간이다. 하지만 작년과는 다르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KOICA 지원을 받아 현장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조해서 한 반 수업이 어려웠던 공간 확보를 위해 작게나마 교실을 짓기로 했다. 이곳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비치될 것이다. 또한 다른 수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청각 기자재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던 시청각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합창단과 합주반을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노래도



크리스마스 파티

알려주고, 악기도 가르쳐 주고 있다. 방학이라 많은 아이들이 오지 않지만 그래도 나날이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르침의 즐거움을 채운다. 또한, 여력이 된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동요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요집 하나 없는 이 나라에 악보를 정리해서 동요집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급하고 싶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다면 말이다.

나에게 주어진 길에서 이 아이들에게 음악적 경험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즐거운 것들이 있음을 심어주고 싶다. 음악 자체가 주는 ‘만짐’이 생활의 단조로움을 느끼는 아이들에게는 흥미를, 삶의 고단함을 벌써 알아버린 아이들에겐 위로를, 혼자여서 외로워하는 아이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 무엇인가 이루어내지 못했던 아이들에겐 자신감과 성취감을 선물로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조금 힘들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이 길을 지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남아 있을 즐거운 흔적들을 기대하면 이 힘들, 어찌 못 참으랴.

힘들 때마다 민도의 소중한 친구들과 아름다운 자연에서 쉬어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한국으로.

손성희 — KOICA 일반단원으로 현재 에콰도르에서 활동.